

내고장이야기 '어린이 군산학' 호응

48개교 초등 4학년 대상 '송나라 사신 서궁이 본 고군산도' · '채금석 축구선수' 등 교육

군산시가 운영 중인 흥미 있는 내고장이야기 '어린이 군산학'이 학생들로부터 높은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다.

시는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 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어린이 군산학은 지역에 대한 역사와 인물을 이해하고 내고장에 대한 애郷심을 길러 미래 군산시민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사업.

올해부터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지난 4월 3일 소룡초등학교를 시작으로 48개교 초등학교(4학년, 121학급, 3,000명)에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주제가 있는 군산 이야기 '송나라 사신 서궁이 본 고군산도', '군산의 인물이

이야기 '채금석 축구선수'를 교육하고 있다.

특히 수업의 흥미를 끄는 교육으로 고군산군도 병풍책과 태극기 바람개비 만들기 등 창작활동 시간을 편성, 참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또한 어린이 군산학 프로그램과 더불어 진행 중인 문화유산 방문교육은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 상 어린이 군산학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섬지역(오식도초, 농촌지역(서수초, 옥산초, 술산초, 나포초, 오봉초) 등의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방문을 통한 이론교육과 고군산군도 역사탐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대성 시 인재양성과장은 "군산은 역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이자 문화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한 곳으로 군산의 어린이들이 '어린이 군산학'을 통해 내 고장의 역사·문화를 흥



군산시가 운영 중인 흥미 있는 내고장이야기 '어린이 군산학'이 학생들로부터 높은 호응과 관심을 얻고 있다.

미롭게 만났으로써 애郷심이 싹트고 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따뜻한 인성을 함양하는 데 큰 역할 /군산=김판근기자

군산 부부 5쌍 '사랑나눔 합동결혼식'

여성단체협의회 주관

25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5쌍을 대상으로 한 '사랑나눔 합동결혼식'이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한원컨벤션(구, 공전예식장)에서 열렸다.

이날 합동결혼식은 신랑·신부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의 주례 및 혼인서약, 예물증정,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한준수 부시장은 주례사를 통해 "결혼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으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결혼식에 필요한 메이크업과 웨

딩드레스, 사진촬영, 하객식사 등은 군산시양성평등기금으로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원했으며, 예물반지, 전기압력밥솥, 선종기 등을 후원받아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속에서 인정 넘치는 행복한 결혼식이 진행됐다.

합동결혼식을 올린 한 신랑은 "어렵게 살아가다보니 아내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 뿐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어 소중한 추억이 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정명자 시 여성단체협의회장은 "5쌍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넘쳐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군산=장현기자

군산 소룡동, 이동복지상담 첫발

군산시 소룡동행정복지센터는 복지허브화 지역특수시책으로 12월까지 매월 2회 복지소외계층 밀집지역 중심으로 이동복지상담실을 운영한다.

첫 번째 이동상담실은 관내 신도시 아파트로 복지관련 홍보물과 홍보물품 배부, 각종 복지제도 지원기준 등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좀 더 깊은 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사후 가정방문 일정을 잡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군산=장현기자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과 공자학원은 2017 국제공동학술대회를 26일 오전 9시부터 학생지원관에서 개최한다.

'불확실한 세계경제에 상생하는 한중관계를 주제로 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 가운데 이희욱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정치외교, 통상산업, 역사문화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상생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이상민(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김정현(동북아역사재단) 교수실장, 박대길(역사편찬위원회) 조사위원이, 중국 측에서는 리우딩커(호남중외어대) 교수, 위엔타오(남개대) 교수가 각각 발제자로 참여한다. /익산=장양원기자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사업

원광대병원, 전북권역 중심병원 지정

예수병원 등 6개 참여병원 대상 유행 발생 관리·예방관리 활동 수행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2017년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사업에서 원광대학교병원이 전북권역 중심병원으로 지정됐다.

본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관련 감염병(다제내성균 6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하여 권역별로 중심병원과 참여병원을 지정,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의료관련 감염병 감시에 따른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지원과 예방 관리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북권역 중심 병원으로 지정된 원

광대학교병원은 향후 예수병원 등을 포함한 6개 참여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관련 감염병 유행 발생 관리 및 예방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권역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을 진행할 예정이다.

권역중심병원인 원광대병원은 권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기적인 교육(세미나) 운영, 의료관련 감염병 유행 관리 대책 지원, 의료관련 감염병 예방관리 프로그램 기획 운용, 참여 기관 관리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은 감염병 환자 발생 시 격리실 운영 및 신규 발생률에 대한 감염을

감시하는 것이다.

권역 중심병원인 원광대병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의료관련 감염병 관리 기술지원을 받아 의료관련 감염병 발생 감소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안전한 병원 환경을 도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광대병원 이재훈 감염관리실장은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감염병에 대한 관심이 지대해졌다. 본원은 앞서가는 감염 예방 활동을 강화,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지역 국회의원에 현안 해결 협조 요청

정현을 익산시장은 25일 국회에서 지역구 이춘석, 조배숙 국회의원을 만나 익산시 역점시책 추진 및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협조 체계를 굳건히 하기로 했다.

역점시책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2단계 사업(5,000억원), ▲전북권역 광역전철망 구축사업(940억

원), 폭 해결해야할 현안사업 ▲하수처리장기량과 사업(147억원), ▲국도 27호 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개설 사업 등 총 16건의 사업에 꼭 필요한 국비 확보와 관련 행정 절차가 빨리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내년 신규 사업으로 7억원의 국비를 요청한 하수처리장 감량화 사업은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기재부 및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정현을 시장은 "시 역점시책과 지역 현안 추진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회의원과 격의 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며 각종 어려움을 이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보훈가족 전기안전 서비스 지원 협약

서부보훈지청-한전 익산지사

전북서부보훈지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익산지사는 지난 24일 전북서부보훈지청 황금재실에서 '보훈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안전 서비스 지원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보훈가족에게 전기안전 서비스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

를 통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협약내용은 1. 주거여건이 열악한 보훈가족의 전기안전점검 및 노후 전기설비 개선 등 무료봉사활동, 2. 독거노인 또는 소외계층 위문활동도 병행하여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새 정부 공약정책과제 추진 전략회의 개최

익산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빠르게 지역 공약 및 각종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25일 오전 익산시는 이지영 부시장 주재로 각 국소단체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공약정책과제 추진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시는 익산시의 핵심정책 및 공약, 지역 핵심 현안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국책연구기관과 용역 등 구축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중앙부처의 정책방향을 신속히 파악해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익산시는 지역단위에 맞는 여러 현안을 정리해 새 정부 공약과 함께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는 각 국소단체가 현안사업 보고회를 통해 새 정부에 맞는 현안사업을 논의한다. /익산=장양원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